

금속노조, 진짜 사장 원청교섭 본격화 선언

원청교섭 투쟁본부 개최, 교섭 준비 착수 ... “원칙은 사업장별 노사자율교섭”

금속노조가 노조법 2·3조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진짜 사장’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을 본격화한다. 금속노조는 노사 자율로 사업장별 상황에 맞는 교섭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침으로 했다.



금속노조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13기 1차 원청교섭 투쟁본부 회의를 열었다. 원청교섭 방향과 하반기 사업계획을 정했다. 이번 회의는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원청교섭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투쟁본부의 첫 번째 공식 회의다.

투쟁본부는 이날 논의를 통해 교섭 범위를 열어놓고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사내하청, 자회사뿐 아니라 사외 하청, 특수고용, 부품사, 협력사 등 실질적인 원청이 있는 모든 경우를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다.

교섭 의제 역시 임금, 복리후생, 노동안전, 노동조합활동 등 특정 사안에 제한을 두지 않고 현장 상황에 맞게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금속노조 기본협약, 간접고용비정규직 기본협약, 하청관련 산별협약 등 참고하여 원청교섭 요구안을 설계하기로 했다.

특히 교섭 방식과 관련해 원청교섭에는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대신 노사 자율로 사업장별 상황에 맞는 교섭 절차와 방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가 준비 중인 매뉴얼(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와 교섭 의제 제한 시도에 반대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올 4분기 사업계획으로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등 선도적으로 원청교섭 투쟁을 진행 중인 사업장을 적극 지원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각 지부 간접고용 사업장 현황 파악 및 교육 토론회를 진행해 원청교섭에 대한 조직 내부의 이해도를 높이고 Q&A 자료 제작,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전에도 나설 예정이다.



11.8 가짜, 서울로!